

진정한 자본가, 워렌 버핏

워렌 버핏이 자신이 축적한 자본의 대부분을 친구인 빌 게이츠가 세운 재단에 기부하기로 발표함으로써, 미디어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금융위기를 맞아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된 그는 순수한 투자가로서의 일생을 살았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세계적인 부자들이 대개 기업을 창업했거나 그 후손들인데 비해 워렌 버핏의 경우는 부의 축적 과정이 남달랐다는 점에서 집중조명의 가치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단 한 권의 책도 낸 적이 없지만, 그에 관한 수많은 책들이 나왔습니다. 나는 버핏이 투자가가 아닌 인간으로서 일에 대한 그의 철학을 재조명해 보고 싶었습니다.

버핏의 두 가지 성공원리

월 스트리트에서 큰 부를 이룬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월 스트리트와는 담을 쌓고 살았던 워렌 버핏의 성공은 연구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나는 워렌 버핏의 성공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원리에 근거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자신의 일을 즐겼다는 것인데, 이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원리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 그 자체가 곧 일하게 하는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신만의 철학을 정립하여 그것을 일관되게 실천했다는 점입니다.

노동의 의미

노동을 의미하는 독일어 아르바이트(Arbeit)라는 말에는 고통스럽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한다면, 그러한 노동에는 항상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서구 자본주의가 그 틀을 갖추게 되면서부터, 즉 기업이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추고 부(wealth)의 축적이 자본(capital)의 형태로 전환되어 투자의 대상이 되면서부터, 부의 축적에 육체노동보다 정신노동이 점차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실물경제가 금융경제를 압도하던 시대에서 거꾸로 금융경제가 실물경제를 지배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앞으로 이런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인류의 노동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기를 제공했습니다. 아르바이트가

더 이상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즐거움을 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운동 선수가 그 운동을 통해 큰 돈을 벌겠다고 한다면 그 운동이 고통을 수반할 수 있겠지만, 운동 그 자체가 즐거워서 하고 그 결과로 돈을 버는 것뿐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숙한 자본주의의 진정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싫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노동과 노동 그 자체가 즐거워서 하는 노동은 엄청난 생산성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은 돈 버는 것이 생계를 위해서나 풍요로운 삶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돈 버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 됩니다. 워렌 버핏이 바로 그런 사람이지요. 막대한 부를 축적했지만, 그러한 부로 누릴 수 있는 어떠한 사치와 안락함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부를 축적하는 세 가지 길

자본주의 시대에서 큰 부를 축적하는 방식은 세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 기업가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비즈니스의 길을 열어 창업한 헨리 포드, 앤드류 카네기, 빌 게이츠가 그런 사람입니다.

둘째, 경영자가 되는 길입니다. 기업가가 만들어 놓은 회사의 경영전문가로 활동하여 성과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음으로써 부를 축적합니다. 잭 웰치, 샌포드 웨일 등이 이 부류에 속합니다.

셋째, 투자가의 길을 걷습니다. 수익률이 높은 곳에 투자했던 존 템플턴, 워렌 버핏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기업가로 출발했든, 경영자였든, 투자가였든 상관없이 이들의 공통점은 자본가로서의 철학을 분명히 했다는 점입니다. 축적된 부, 즉 자본을 가지고 있으면 자본가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출발은 다르더라도 일단 자본가의 반열에 오르게 되면, 누구나 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심각하게 고려합니다. 투하한 자본비용 이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곳에 재배분함으로써 자본가의 부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진정한 자본가란 어떤 사람인가

이러한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자본가는 자본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보다 더 성숙한 자본주의로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사회의 장기적 발전에 쓸

수 있도록 공헌하는 방법을 고안하고 거기에서 자신의 부를 아낌없이 쏟아 붓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밑거름이 됩니다. 이러한 밑거름을 토대로 자본의 효율적 운용에 커니즘을 통해 서구 자본주의의 선순환적인 발전을 이룩하게 되었습니다. 워렌 버핏이 기부한 금액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축적한 부, 즉 자본을 어떻게 배분했을 때 가장 효과가 클 것인가를 꼼꼼히 따져 봤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인류의 질병과 가난을 퇴치하려는 사명을 가진 빌 게이츠 재단에 기부한 것입니다. 투자가로 출발했던 워렌 버핏이 결국은 서구 자본가들이 밟았던 진정한 자본가로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자본가는 없고 기업가만 있는 셈인가요?

그들이 어떤 길을 갔든,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발한 비법을 통해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평범한 상식이고 우리가 다 아는 진리를 평생 실천했던 사람들입니다.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는 방식을 지속한다면, 누구든지 노후를 풍족하게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부를 축적하는 방식은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삶과 노동에 관한 철학이 필요합니다. 부의 지속적인 축적은 진실을 바라보는 시각과 진정한 노동철학이 정립되어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큰 부를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이 하는 일을 어쩔 수 없이 하는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그것을 즐거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생애가 끝날 때까지 그 일을 해낼 수 있었고, 그 결과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워렌 버핏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했듯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했고, 그것이 투자를 통해 돈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즉 돈 버는 방법이 그의 적성에 맞았고, 그것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을 뿐이죠.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버크셔 해서웨이를 경영하는 일을 사랑합니다. 만약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이 오래 사는 것에 도움이 된다면, 무두셀라(노아 홍수 이전의 족장으로서 969세까지 살아 가장 오래도록 장수한 성경상의 인물)의 기록마저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워렌 버핏이 즐겁게 일했기 때문에 항상 성공했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도 초창기부터 최근까지 투자에 여러 차례 실패해 왔습니다. 1960년대에는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섬유회사에 투자하여 경영권까지 인수했으나, 그의 고백대로 이 투자는 최악의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 회사는 후일 그가 투자하거나 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지주회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변화되었습니다. 1990년대에는 구리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큰 재앙은 아니었지만 실패로 끝났고, 월 스트리트의 투자은행이었던 살로몬 브라더스의 회장으로 취임한 것도 성공적이진 못했습니다. 21세기가 되면서 달러화 약세에 베팅하는 외환투자

에서 막대한 손실을 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파생상품과 투자은행의 위기에서 그는 또 다시 막대한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큰 손실을 입었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보상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나는 신나는 일을 계속하면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진정한 자본가의 모습을 봅니다.(끝)

<글쓴이>

최동석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이 글은 다음 사이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www.mindprogram.co.kr